



그들의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해서 악몽이란 이름도 너무 약한 것은 아닌가.
그들의 희망이 너무나도 높아서 꿈이라는 이름도 너무 약한 것은 아닌가.

- 존 버거의 제 7의 인간 중에서 -

이주노동자들의 친구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 및 문화향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민노동조합
한국농부노동조합
한국농부노동조합
한국농부노동조합

꿈

그

리

고

악몽

꿈

그

리

고

악

몽

도움 주신 분들

이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애정과 수고를 보태셨습니다.

한국에서 사망한 네팔 노동자 명단을 함께 작성하고 자료 확보에 도움을 주신
'재한네팔인공동체(NCC)'와 멀리 네팔에서 유가족을 찾고,
아픔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자꾸 숨기기만 하는 유가족을 설득해 주시고
직접 통역까지 해 주신 아시아인권문화개발포럼(AHRCDF) 활동가들,
그리고 부족한 자료로 훌륭한 영상물을 만들어주신 장효정 님께 감사드립니다.

꿈 그리고 약속



책 을 만 들 며

대한민국 사회는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하게 되면서 그동안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삶이대한민국 사회에서 피고 지며, 또 다른 교류와 소통, 다름과 화해, 탄생과 죽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삶은 기쁨이기도 하며 슬픔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중 가장 큰 충격이며 슬픔인 죽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약 20여년 전부터한국으로 이주해온 노동자 중에서네팔 출신 노동자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가장 체류자 수가 많다는지금도 약 5천여명 정도인데, 이는 전체 이주노동자의3~4% 정도일뿐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20여년 간 한국에서 사망한네팔인이 60여명이나 됩니다. 전체 이주노동자 사망자는 통계조차도없는 형편입니다. 네팔 사망자를 중심으로 볼 때 사망원인은 무척 다양한데 유독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중 일부는 보상금을 몇 푼 받은 이들도 있고, 혹은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빈 손, 빈 가슴인 이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복잡하고도 역척스러운 사회구조 속에서슬픔과 고난을 겪으며 일하던이주노동자의 주검에 놓인 몇푼 돈은 그 자체로도 슬픔입니다. 그돈 몇푼이 면죄부가 되기도 하여 그죽음을 잊어버리는데 특효약이 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몇 푼 보상금도 없는 주검은 더욱 쓸쓸하게 한국 땅을 떠나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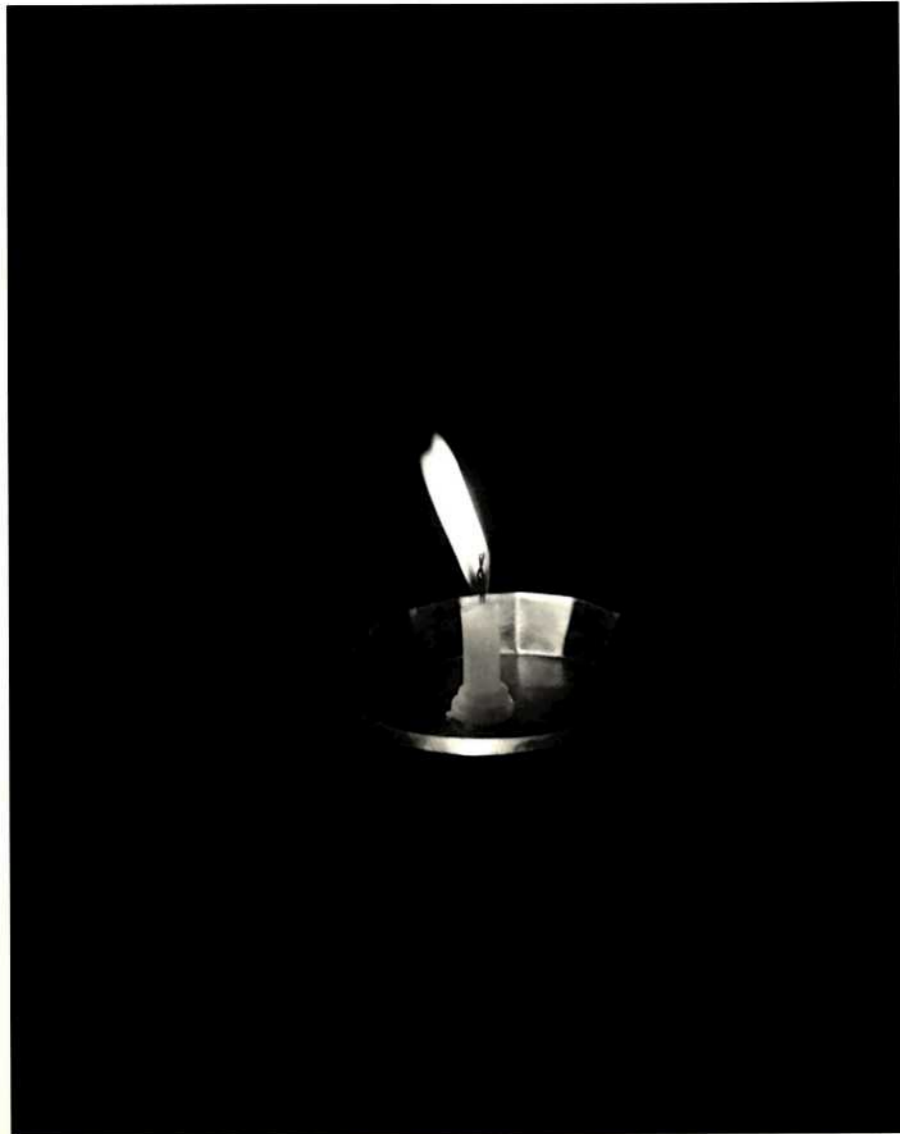
이주노동자 곁에서 일하는아시아인권문화연대는 그 죽음을 또렷이 보고 느낍니다. 그리고 기억하고자 합니다. 자신들의 희생과 죽음을 흠대 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향해, 우리를 기억해주세요, 하며 외치는 이주노동자의 절규가 너무도크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주노동자' 일 뿐인 한 사람이 죽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집주인과 경찰과 상담소가 잠시 분주했을 뿐이다. 그러곤 그만이다. 대한민국에서 그의 존재감은 그저 그 정도일 뿐이다. 그는 한 줌 가벼운 재가 되어 고향으로 갔다. 그러나 고향집에서는 그의 죽음으로 인해 '하늘이 무너졌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무엇입니까? 이주노동자의 죽음은또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깊은 상처'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드러내고, 헤집고 기록하는 일은 힘겹고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생과 사의 국경을 넘어 떠난 이주노동자들과 그 유족의 눈물을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C O N T E N T S



06	첫번째 이야기	삼세르 바하두르 타칼리 Samser Bahadur Thakali
14	두 번째 이야기	베그 바하두르 라나 Beg Bahadur Rana
20	세 번째 이야기	고버던 차우더리 Goverdan Chaudhari
26	네번째 이야기	산토스 사히 Santosh Shahi
32	다섯 번째 이야기	고빈더 바하두르 채트리 Govinda Bahadur Chhatri
40	여섯 번째 이야기	수바스 구롱 Subash Gurung
48	일곱 번째 이야기	람 크리스너 뿐 Ram Krishna Pun
54	여덟번째 이야기	마답 쿠워 Madhav Kuwar
60	아홉번째 이야기	경가 람 쿠워 Ganga Ram Kuwar
66	열 번째 이야기	로메스 케이시 Rames K.C.
74	열한번째 이야기	찬드라 라이 Chandra Rai
82	열두번째 이야기	비렌드라 비끄람 사아 Birendra Bikram Shah



첫 번째 이야기



삼세르 바하두르 타칼리 Samser Bahadur Thakali

45세, 2006년 1월 2일 사망

2001년 한국입국, 서울에서 5년 정도 체류

유가족 : 아버지, 형남내외, 두 아들

서울 성수동 자취방에서 시신으로 발견, 발견 4~5일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

사인은 알 수 없으나 타살혐의 없음.



늦은 밤경찰사에서 온 전화를 받았다. 서울 중앙경찰서인데요, 네팔인 추정번호사자가 있어요. 가족을 찾아야 되는데 도와주실 랍니까. 아... 에... 혹시 여권이 있나요? 여권상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시면 알아볼게요...

영세공장이 밀집해 있는 서울 성수동 철거를 앞둔 한옥이 다다다닥 붙어 있었다. 바로 길 건너편에는 죽죽 뻗은 새 아파트가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골목도 얼마 후면 사라지고 저렇게 변신하겠지. 녹슬고 자그만 철제대문이 좁은 골목을 따라 늘어져 있었다. 그 중에 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좁다란 마당을 사이에 두고 안채와 별채가 마주보고 서 있었다. 삼세르 씨는 그 별채에서 혼자 숨을 거뒀다고 한다. 철거할 집인지라 안채는 비어 있었다. 다른 곳에 사는 집주인 아주머니가 오랜만에 들렀다가 심한 악취에 놀라 방문을 열어보니 삼세르 씨가 죽은 채 썩어가고 있더라. 방문 앞에는 딱딱하게 굳은 빵과 우유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 아픈 친구를 보러 왔다가 시신을 보고 놀라 두고 달아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 사람이 불법체류 중인 상태였다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괜한 일로 위여자신도 쫓겨나게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새벽 4시쯤인가 전화벨이 울렸어요.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분명 한국에서 온 전화였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것이 우리 서방님이 우리에게 한 마지막 전화였다는 것을...

고인은 혼자서 앓고 있었다고 한다. 감기였는지 몸살이었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한 것이었는지는 모른다. 드물게 찾아갔던 친구가 전해준 말도 그랬고 방안에 찢긴 채 널려있던 약봉지도 그랬다. 타살 흔적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부검을 해야 했다. 가족에게 연락하고 부검이 끝난 후 시신을 화장했다. 부검에서도 특이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다. 약물검사 결과는 한 달쯤이나 지나야 나올 것이다. 쓸쓸한 죽음이야.



삼세르 바하두르 타칼리, 한국에서 일할 때

성실했어요.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지요. 다시 한국에 간 이유도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교육이라도 제대로 시키고 싶어 했어요. 네팔에서도 전에 이것저것 사업을 했는데 다 실패하고 재기하려면 목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게 된 거죠. 아마 애들 때문에 주저앉고 싶어도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서방님이 한국으로 간다니까 남편이 자기가 아는 한국 교수를 한 분 소개해 줬어요. 가서 일자리를 부탁하라고요. 그 교수님은, 한국에서 일하기 힘드니 다시 네팔로 돌아가라고 했다더군요. 아마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니까 선뜻 일자리를 소개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돌아올 수 없잖아요. 어떻게 간 한국인데요... 어찌 일자리를 구했다고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처음엔 안경 공장, 그 다음엔 실공장, 양계장, 양말공장... 많이 옮겨 다녔대요.

주인이 떠나고 없으니 방을 정리해야 했다. 혹시 중요한 유품이 있는지도 찾아봐야 했다. 유품은 유골을 가족에게 보낼 때 함께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유골을 받아 안으면 가슴이 무너질 텐데 나중에 유품이 따로 가면 똑같은 아픔을 두 번씩이나 겪어야 할 테니. 꼭 닫혀있던 방문을 여니 싸늘한 기운과 함께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냄새가 쏟아져 나왔다. 시신이 썩고 음식도 썩고 꿈도 희망도 썩어서 방안에서 뒤섞인 채 고똥스러운 냄새를 내 뿜고 있었다. 방 한편에는 두꺼운 이부자리가 깔려 있고, 한 편에는 냄비며 그릇이며 음식찌꺼기가 널려 있었다. 부엌이 따로 없으니 방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한 모양이었다. 삶이나 죽음은 참으로 간결하면서도 신산스러운 것이었다.

불법체류자로 일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몇 달씩 월급을 못 받기도 했는데 불법이라 어디 호소하기도 힘들다고 했어요. 그럴 때는 다 그만두고 어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지금 생

각해 보면 너무 미안하고...

이불 위로는 찢어진 옷가지가 뭉쳐 있었다. 함께 간 형사가 시신을 병원으로 모실 때 옷을 가위로 잘라 벗긴 탓이라고 변명처럼 말했다. 시신에서 흘러 나왔을 체액이 요를 까맣게 물들인 채 썩고 있었다.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

아이들도 그런 아버지를 참 좋아했어요. 한국에서 전화가 오면 고작 '네.. 네..'하는 대답이 전부였지만, 멀리 있는 아버지 사랑을 잘 알고 있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시동생은 아이들을 의사와 엔지니어로 키우고 싶어 했어요. 큰애가 대학 예비과정을 마치고 공과대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얼마나 좋아했다고요. 나 고생하는 건 다 참을 수 있으니 애들 잘 돌봐달라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 했어요... 조카들은 제게는 자식 같은 애들이예요. 시동생도 제게 애들 엄마는 바로 형수님이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우리 애들은 엄마랑 떨어져 아픈 상처를 안고 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떠나고 남은 식구들끼리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큰 여행 가방이 몇 개 있고 수첩과 사진이 몇 장 있었다. 벽에 걸린 옷가지와 가방에 든 철지난 옷가지와 수건, 자질구레한 살림은 챙기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수첩은 네 권이나 있는데 뭔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숫자가 무척 많은 것으로 봐서 금전출납부 같기도 했다. 아, 이불옆에 핸드폰이 하나 있었다. 여기서기 칠이 벗겨진 회색 핸드폰. 그렇게 죽을 만큼 아플 때 친구에게 전화라도 했더라면...

서방님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을 때, 저는 집에 없었어요. 어떤 네팔 사람이 전화를 했다는데, 아버님이 받으셨어요.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해서... 그 소리를 듣고 아버님이 한참이나 말씀을 못 하셨어요. 하늘이 무너지

는 것 같다'라고 가슴을 쥐어짜듯 말씀하신게 다예요. 지금은 슬퍼하는 모습을 잘 안 보이세요. 애들 생각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서방님이 마지막 전화를 했던 날이요... 아마 그날 돌아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순간에 식구들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전화한 것 같은데... 그 전화가 안 들려서 그냥 끊었으나... 이 핸드폰이에요. 서방님이 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도 이게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었을 텐데 서방님은 가고 이것만 남았으나... 저는 가끔 그때 전화가 들렸더라면 서방님이 내게 무슨 말을 했을까 생각해요. 애들 부탁이겠지요. 애들 잘 키워달라고 했을 거예요. 안 들리더라도 걱정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에휴... 그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을 텐데...

형사가 이불을 들춰 보라고 했다. 외국인들은 이불 밑에 뭘 잘 숨기더라구요. 조금 들춰보니 아무것도 없다. 다시 한쪽 끝을 들고 이불을 죽 당기니 돈 뭉치가 나왔다. 노란 고무줄로 동여맨 만 원 짜리 돈 뭉치. 세어보니 78만원이었다.

너무 늦게 알았어요.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썩어가고 있었다고 그러던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평소처럼 밥 먹고 잠자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한국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신이 너무 상해서 보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해서 한국에 화장을 부탁했어요.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을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재가 되어 오다니...

동대문에서 식당을 하는 디네스 씨가 줄곧 일을 도왔다. 디네스씨는 고인을 식당 손님



삼세르 바하두르 타칼리의 아버지



삼세르 바하두르 타칼리의 형과 형수



형의 집에 걸린 영정사진



형의 장식장에 놓인 삼세르 바하두르 타칼리

으로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인연으로 디네스 씨는 가족에게 연락하고 통역하고 전후 사정을 설명하는 역할을 했다. 디네스씨가 기억하는 고인은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 혼자 있고 싶어 하고 말수도 적어, 있어도 있는지조차 잘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가끔 고향생각 날 때만 식당에 왔는데 대부분 혼자였다고 한다. 디네스 씨는 고인에 대해 더 신경 써 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 더 따뜻한게 대해야 했었는데 그러질 못했다고 고인은 일본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왔다고 한다. 일본으로 일하러 갔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달음에 네팔로 달려갔지만 결국 아내를 다시 보지 못했다고. 자포자기한 채 시간을 보내다가, 돈 벌어서 아이들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어서 어렵게 수속해서 한국에 왔다고. 아내가 버리고 간 아이들이 형님 댁에서 자라고 있다고.

큰 애가 충격을 많이 받았나봐요. 갑자기 말도 안하고 밥도 잘 안 먹고, 지금은 학교도 그만두고 시골로 갔어요. 엄마가 그랬을 때도 잘 견뎌낸 애들인데... 애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그 애가 아버지 수첩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보다 울다 했어요. 수첩에는 일했던 회사, 노동한 시간, 받은 월급, 송금한 돈, 친구들에게 빌려준 돈, 자잘한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에 대한 것이 모두 적혀 있었어요. 택시를 많이 타야 해서 돈이 많이 든다는 내용도 있었고... 또... 한국이 지옥 같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애들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있었어요... 애가 그걸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이주노동자'일 뿐인 한 사람이 죽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집주인과 경찰과 상담소가 잠시 분주했을 뿐이다. 그러곤 그만이다. 대한민국에서 그의 존재감은 그저 그 정도일 뿐이다. 그는 한 줌 가벼운 재가 되어 고향으로 갔다. 그러나 고향집에서는 그의 죽음으로 인해 '하늘이 무너졌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가족은 흩어지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었다.



네팔, 마을전경

네팔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 중앙부에 자리잡고 있다. 북쪽으로는 중국, 티벳, 남쪽으로는 인도와 접해있으며, 카투만두가 수도이다. 네팔은 기본적으로 입헌군주제에 입각한 의회내각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 10여년간 내전을 겪으며 체제가 상당히 무너졌다. 2006년 민주화 시위 이후 새로운 정치 체제로 변화하고자 모색하고 있다. 평균 결혼 연령은 20.3세 (남자 20.1세, 여자 20.4세)이고, 평균 수명은 60.18년 (남자 60.43년, 여자 59.91년)이다.

네팔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도·아리안계가 80%로 주류를 이루고 몽골·티벳계가 17%이다. 이를 민족별로 세분화하면 체트리 15.5%, 브라만힐 12.5%, 머저르 7%, 타망 5.5%, 네와르 5.4% 등이다. 종교는 힌두교 80.6%, 불교 10.7%, 이슬람교 4.2% 등으로 힌두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종교적 갈등은 거의 없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관광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산업발전이 더딘 편이며, 인구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

베그 바하두르 라나 Beg Bahadur Rana

38세, 2005년 6월 안양 군포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

유가족 : 부모님, 두 아내, 세 아들과 딸 하나

일하던 중 감전사고로 사망

●

저는 2002년도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가기 전 버스 차장으로 일했습니다. 카투만두와 버터푸르를 오가는 버스를 타고 손님들에게 차비를 받고 노선을 안내했습니다. 저는 잔돈이 가득 든 주머니를 차고 버스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5루피(70원)를 주거나 받고 꼬깃꼬깃한 잔돈을 세고 카투만두요~ 카투만두요~ 하고 외쳐 손님을 모으고... 그렇게 이어지는 일상이 불현듯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200루피 정도 벌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꾸 커 가는데 그 벌이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학교에나 제대로 보낼 수 있을까, 저는 덜컥하는 버스에 실려 흔들리면서도 암담한 현실을 벗어날 궁리에 바빴습니다.

저는 두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시골집 부모님 밑에서 두 아내와 함께 살다가 둘째 아내가 자그만 구멍 가게를 하나 내면서 저와 함께 시내로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차장으로 일하려면 아무래도 시내에서 사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내는 모든 면에서 저보다 시원시원하고 나왔습니다. 시원찮은 돈벌이 때문에 고민하는 제게 한국으로 가서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것도, 여권을 만들어주고 한국어를 배워야 일하기 편할테니 미리 공부하라고 격려한 것도, 빚을 끌어다 한국으로 가는 비용을 낸 것도 그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작은 파이프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바로바로 네팔에 보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식구들은 빚을 갚고 먹고살고, 아이들 교육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자그만 땅을 하나 샀습니다. 돈은 제가 벌어서 보내면 조금씩 값이 나가기로 하고요. 저는 3년 노동기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길 꿈꿨습니다. 그 땅을 기반삼아 건물을 짓고 장사를 해서 먹고살자고, 아이들과 아내와 그런 꿈을 속닥였습니다.

아, 그런 제게... 제게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날도 저는 파이프를 물속에 넣는 일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뜨거운 파이프를 차게 식히기 위한 공장안데 저는 물속에 엄청난 전류가 흐르는 것도 모르고 바

보같이 그 물에 발을 빠뜨렸던 것입니다. 순간 정신을 잃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저는 다른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그 바하두르 라나와 아내

저는 뺏가루가 되어 네팔로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네팔에서 저는 부모님 얼굴을 뵈고 아이들을 만나고 아내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슴 가득 안아주고 싶은 이들을 안아줄 수도 없고 제 목소리를 들려줄 수도 없다는 사실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서러웠습니다. 한없이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손가락을 빨고 있는 어린 아들을 맥없이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슬픔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조그만 땅, 거기서 함께 키우려고 했던 소망들이 그저 불품없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저는 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붉은 콩이며 주전부리 거리를 사 들고 들어가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초롱이며 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초라한 먹을거리에도 기뻐하며 달려들던 아이들이 지금도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아,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도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품어줄 수도 없게 되 어버린 저는 저는 이제 무엇입니까?



네팔 거리



불안한 정치상황을 보여주는 거리

네팔 경제

네팔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불안한 정치상황과 인접한 바다가 없어 물류에 어려움이 크다는 악점으로 인해 산업발전이 더딘 편이다. 2004년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네팔 GDP는 67억 700백만불로 조사 대상국중 111위를 기록했으며, 일인당 GDP는 260불에 불과하다.

근래들어 전통적인 토지소유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농경지의 90%이상이 봉건적 지주계급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 계단 경작지가 많은 지형이나 고지기후로 인해 토지생산성도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주종산업이 되어 취업인구의 약 81%가 농업에 종사하고 국민총생산의 약 41%를 농업생산에 의존하고 있다. 1997년부터는 제 9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으며 연평균 4%의 성장을 보였다. 네팔은 풍부한 수력자원(세계2위)과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경제발전의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네팔은 주로 기성복, 파슈미나, 카펫, 보석류 등을 수출하고 차량, 차량부품, 섬유, 화학비료, 식료품(곡물류), 의약품, 농기구등을 수입하고 있다. 최대 무역상대국은 인도이며 전체 수출입의 각각 33%, 31%를 차지하고 있다. 1999/2000년의 수출은 7억 8000만불, 수입은 15억 5000만불이다.





세 번 째 이 야 기

●

고버던 차우더리 Goverdan Chaudhari

35세, 2002년 사망

2001년 연수생으로 한국입국

유가족 : 아내와 아들 둘

일 마치고 귀가한 후, 자취방에서 시신으로 발견

과중한 노동과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추정

●

우리 집 앞에 펼쳐진 논에는 푸른 벼가 넘실대고 있어요.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농사를 짓지요. 가을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쌀을 거둬들입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씨뿌려 농사짓고 곡식을 거두며 살아왔어요. 우리는 땅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삶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릇하니 올라오는 벼를 보면 반가움 대신 서러움이 밀려옵니다.

남편은 한국으로 가기 전에 인도에서 군인으로 일했어요. 그 직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고 싶어했어요. 마을에서 몇 사람이 이미 한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힘들지만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군인으로도 일했는데 그까짓 연수생으로 일하는 것 쯤이야 뭐가 어렵겠냐고 했어요. 그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바보였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남편은 한국에 두 번 째 간 거였어요. 98년에 처음 한국에 가서 3년 일하고 왔어요. 처음 갈 때 무척 큰 돈이 들어있어요.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서 그 돈을 마련했지요. 아버님, 어머님도 걱정이 크셨어요. 돈을 얼마나 벌지도 모르는데 땅을 팔아버리면 우리 식구들이 뭘 먹고 사느냐? 그런 걱정을 들으며 한국으로 가서 3년 벌어서 그 땅을 샀어요. 그 새 땅값이 올라 팔때보다 조금 비싸게 샀지요. 집 앞에 너른 땅이 그때 팔았다가 도로 산 땅이에요. 또 그때 번 돈을 시동생을 한국으로 데려가는데 썼어요. 그게 다죠.

남편은 한국에서 염색 공장에서 일했다고 들었어요. 처음 연수생으로 갔을 때도 그 공장이었다고. 두 번째 연수생으로 갔을 때도 같은 공장이었다고 해요. 남편이 성실하고 일을 잘 하니 회사에서나 연수생관리회사나 다 남편을 믿고 두 번씩이나 데려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꼭 한번만 데려가고 두 번째는 절대 안 데려간대요. 별로 위험하지도 않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위험한 일이 아니면 그렇게

자다가 죽을 수가 있나요? 일이 너무 고되서 그리 되었다는데...



고바던 차우더리의 집

남편은 꼼꼼하고 잔소리가 많았어요. 돈 함부로 쓰

지 말고 저축 잘 하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우리 큰애가 오른쪽마비거든요. 날 때부터 그런대... 그에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많아요. 지금껏 학교 한번 못 가보고 집에 그냥 있는데 앞으로 그애가 먹고 살려면 우리가 아껴서 남겨줘야 하잖아요.

그러니 남편은 큰 아들 걱정이 유난하고, 아마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했을 거예요. 자기 몸이나 좀 챙기면서 일하지. 우리에게 아들이 금쪽같듯이 당신도 부모님께겐 금쪽같은 아들인데...

시아머니는 교사로 평생을 사신 분이예요. 엄하시긴 하지만 정도 많고 바른 분이지요. 남편이 그리 죽고 나서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신 분이 어머니세요. 당신도 힘드셨는데, 저를 먼저 위로하고 보듬어 주셨어요. 저도 어머니처럼 배운 사람이면 뭔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별로 배운 게 없어서 어머니처럼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남편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그저 땅이나 파고 살아야 하나. 우리 애들도 농사를 지을 자... 그건 별로 안 좋아요. 농사짓지 말고 덜 힘든 일 하고 살면 좋겠어요.

연수생 송출회사에서 남편이 죽었으니 저를 대신 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 가족들은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무척 고심했어요. 가서 돈을 벌면 좋지만 남편처럼 또 변을 당할까봐 걱정이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기도 전에 그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정할 것도 없이 포기할 수 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 시동생이 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치르고 유골도 모시고왔어요. 그리고 다시 일하려 갔죠. 지금은 불법체류 하고 있어요. 지금은 시동생이 다달이 보내는 돈으로 온 식구가 먹고 살아요. 가족들은 이제 그만 오라고 하지만, 시동생은 항상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해요, 시동생이 걱정되지만 우리 집에 시동생 외에는 돈 버는 사람이 없으니 그저 미안하면서도 매달라게 되네요. 저는 이제 무슨 일이든 할 결심이 섰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일하게 도와줄 수는 없으신가요?

이상하게도 우리 막내 아들이 눈에 벼가 출렁이는 걸 좋아해요. 마음이 뿌듯하다나 뭐라나... 나는 그 땅만 보면 지금도 울음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중학생인데, 너무 어려서 아빠가 한국으로 떠났으니 정을 붙일 새가 없었어요. 그러니 아빠가 보고 싶다는 말은 거의 안해요. 그래도 큰 애는 가끔 아빠 얘기를 하는데요. 애가 잘 모르면서도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 저절로 아나봐요. 그게 아니면 어리게 어째 벼가 출렁이는게 좋다는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시동생 돈벌이에 얽혀 살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힘으로 농사짓고 살아야지요. 그래도 그 사람이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팔았던 땅을 다시 사 놓은 것이니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큰 애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애랑 의지하고 살아야지요. 작은 애요? 공부시켜야죠. 공부해서 좀 편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벌써 5년이나 되었네요. 남편 떠난지 농사지으면서 살아야지요. 씨뿌리고 거두고, 또 씨 뿌리고 거두고...



네팔의 빈곤과 불안한 정치상황

이주노동 그리고 네팔

네팔의 빈곤과 불안한 정치상황이 청년들을 나라 밖으로 내몰고 있다. 형편이 못한 이들은 네팔과 국경이 개방되어 있는 인도로, 그보다 좀 나은 이들은 말레이시아, 중동 국가 등으로 이주노동을 떠난다. 그보다 더 높은 송출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나 유럽, 미주 등으로 가고 있다. 네팔노동자들은 이라크 전쟁의 와중에도 미군에 고용되어 전쟁 한복판으로 일하러 떠났으며, 그 중 10여명이 이라크에서 살해된 사실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인도와 국경이 개방되어 있는 탓에 정확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를 추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수백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네 번째 이야기



산토스 사히 Santosh Shahi

33세, 2002년 사망

1997년 처음 한국 입국, 2000년 재입국, 총 5년 체류

유가족 : 부모님과 아내, 아들 둘

심장마비로 사망



어떤 이는 장사를하라고 했고 어떤 이는 자기사업에 돈을 투자해 달라고했고 또 어떤이는 땅을사두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돈으로 집을 짓고있습니다. 그냥여기네팔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집을 지어 세를놓고 월세를 받고 살아야겠다는생각입니다. 흔하디흔한것이 집이지만 우리가짓고있는 집은 아주 특별한집입니다.

저는한국에서돌아온지 1년 남짓 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4년동안 일했는데, 운이 좋았는지 좋은사람들을 만나일도 잘 하고 돈도 좀벌었습니다. 다른나라가서 일하다죽고 다치는사람도 많으니 이 정도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갈 때는 아주 복잡하고도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일하러 간 사람이지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한국에있는 동안에도 이런 저런일로 고민하고 괴롭게 지내는친구들을 많이봤습니다. 사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무사히 일하고돈을 벌기란 쉽지않은 일입니다.

제 남편도 아주운이 나쁜 사람 중 하나였나 봅니다. 2001년 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간지 7개월만에 세상과 이별을했으니 말입니다. 남편은 농사가 힘들어서 아니, 힘들다기 보다는 농사만지어서는 도저히먹고 살고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어 한국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조금 더 고생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소박한 소원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무뚝뚝하지만 정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든든한 배람막이가 되어 주고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내가 가졌던이런 행운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과자 공장에서 일하던 남편은직원들과 회식한다음날 아침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과로



신토스 사히의 친척들

상태에서 술을먹은게 화근이었던가 봅니다. 이게 남편의 죽음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것 전부입니다. 저는 많은걸 묻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이것저것 따져 물을 경황도 없었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던

시동생을 의지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동생이 그런 소식을보내오고 한국에서 장례를치르고 유골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보상금도 받았습니다. 그런 절차가 끝나고 저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죽은 남편 대신 제가 가서일할 수 있도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온 고향엔 여전히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새가 노래하고 있더군요. 달라진 것은 몰라보게 자란 우리 아이들과 남편의 빈 자리뿐이었습니다. 정작 남편이 떠났던 그때는 너무 넋을 놓고 있어서 남편의 빈 자리를느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바로 한국에 가서 돈 버느라 더 정신이 없었지요. 그래서지 우리 아이들은 유난히저를 잘 따릅니다.

엄마, 아빠보다 친구가 더 좋을 나이인데도 두 아들은 제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은 아빠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남편이 떠나던 때 아이들은 고작 열살 남짓이었으니요, 저는 아직도 아이들에게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자세히이야기에 주지 못했습니다. 5년이라는 짧지 않은시간이 흘렀어도 제게나 아이들에게나 그 말을 꺼내는 것조차깊은 상처가될 테니까요.

지금 짓고 있는 이 집은 이런 우리 아픔과 슬픔과 희망을 담고 있는 집입니다.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집을 보면서, 다른 세상의 남편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생각하고, 지난 날 한국에서 보냈던 제 생활을 생각합니다. 이 집에는 못다 이룬 남편의 꿈과 4년 동안 고생한 제 맘, 그리고 아이들의 소망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산토스 사히의 아내

가끔은 산다는 것이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보상받은 돈과 4년 열심히 번 돈으로 집을 짓고 나면 또다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가끔은 소리내어 울고도 싶고 왜 나만 남겨 놓고 먼저 갔느냐고 남편을 탓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월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이들 교육비만 대기에도 벅찰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기술이라도 배우려고 했는데 일 하면서 다른 기술을 배운다는 건 참으로 힘든 일이라군요. 지금이라도 뭔가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부지런히 기술을 익히고 싶어요. 카투만투에 가면 미용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여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에 기술을 배울 짬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조금 더 크고 적절한 때가 되면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으면 우리 집이 완성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방도 하나씩 만들어 주고 작은 거실도 꾸미려고 합니다. 그 거실에는 남편이 살아 있을 때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도 걸어 놓을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잊지 않도록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 사진을 보고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묻는다면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타델거리

산업연수제도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 를 부르는 줄임말이다. 본래 의미는 이름 그대로 저개발국의 인력을 국내에 초청하여 산업기술을 전수해준다는 것이나, 실제로는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데 활용되었다.

산업연수제도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코리안 드림을 향해 가는 통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산업연수생들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아래 엄청난 송출비용을 브로커에게 지불하고 입국했으나, 막상 대한민국에 입국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과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된 차별과 인권침해를 감내해야 했다.

연수생들은 실제로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으나 그 신분을 '연수생' 즉 학생으로 강요당하며 기본적인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1995년 연수생보호지침이 만들어져 폭행 및 강제 근로 금지, 최저임금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등 일부 권리 보호를 받게 되었으나, 이후로도 근본적인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1994년 11개국에서 2만여명을 도입하며 시작된 연수제도는, 2004년 15개국에서 14만 5천여명을 도입하는 규모로 커졌으나, 2007년 고용허가제로 통합되며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또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도 제도를 개선하고 이주노동자를 보호하려는 큰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이야기



고빈더 바하두르 채트리 Govinda Bahadur Chhatri

36세, 2005년 11월 10일 사망

2002년 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인천에서 일함

유족 : 아내와 아들 하나, 딸 하나

회사에서 사용하던 화학약품에 중독되어 사망함.

사고라는 유족의 주장과 자살이라는 회사측 주장이 맞서고 있음.



“여기 한국인데요. 저는 KFSB(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하는 구룡이라고 합니다. 당신 남편이 약을 먹었어요. 살 수 있을지없을지 몰라요. 내일까지 가 봐야 할까요?”

“아니, 왜 약을 마셨는데요?”

“그거야 모르죠. 집안 사정이 그러니까 마셨겠죠”

뚜.뚜.뚜.뚜……

남편 죽음이 너무나도 냉정하게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끊긴 전화를 들고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살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기 싫어서 일이 힘들어서 일부러 약을 먹었습니다. 우리 식구들을 남겨 두고 말입니다. 돈은 잘 저축하고 있느냐. 아이들은 잘 있느냐. 며칠 후에 아이들 거울 잠바를 보내겠다. 평소처럼 통화했는데. 그런 남편이 이 세상이 살기 싫어 죽음을 택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병원 지하실에 있는 시신 안치실에 열흘째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에 든 화학 약품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남편과 같은 방을 쓰던 네팔 사람이 경찰서에서 진술을 끝낸 뒤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그게 사실이라고 남편이 정말 일부러 그 약품을 먹은 것이라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 사람은 아예 저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은 그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그 회사에 처음 세 명이 같이 연수생으로 들어갔는데, 그중 두명은 이미 회사를 그만뒀고 남편만 혼자 일하고있었다고 합니다. 일하기 힘들니 공장을 옮겨 달라고 KFSB에 부탁한 적도 있고 그것이 잘 안 돼서 이틀정도 회사를 안 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결국 회사를 옮기지 못하고 다시 그 회사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다시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겠다는 각서에 사인을 하고서 말입니다.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남편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책임감 없고 나약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요.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이 약을 마시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약을 마시는 걸 본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제 남편이 종이컵에 든 약품을 먹고 자살을 했다면 분명 종이컵에 남편의 지문이 남았을 텐데 남편의 지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컵에 지문을 묻히지 않고 어떻게 컵에 든 약을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제 남편이 자살을 한 거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건가요?

아무리 제가 의문을 제기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군요. 경찰서에서도 이미 확보한 진술대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했습니다. 산재보험에서도 이미 네팔 사람이 진술한대로 자살인 것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한게 아닙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남편은 절대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두 달이 지난 후에야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회사였습니다. 남편은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네팔에 있는 우리들 때문에 그 회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일해야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회사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 사장은 남편이 죽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제 대답은 들으려고도 않더니 아마 집안 일 때문에 자살을 했을 거라고 단정하더군요. 남편은 음독 사고 후에도 만 하루 동안이나 의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어느 누구도 남편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제게 위로금이라고 몇 푼 주고 나서도 두세 번 사인을 하게 하고 차를 도중에 굳이 세워 다시는 이 일에 대해 다른 요구를 하지 말라고 두 번 세 번 확인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그렇게 보내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보내면 다음 세상에서도 남편을 볼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를 도왔던 단체에 연락해서 우리 남편이 정말 자살한 것인지 한번만 더 조사해 사실을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체는 그것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왔던 여러 단체 중에는 회사에서 보상금 받았으면 됐지 더 이상 무엇을 원하느냐며 그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더군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소리 쳐도 한국사람들에게 그런 하찮은 몸부림은 보이지 않는 가 봅니다.

남편은 예쁜 집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방도 마련해 주고, 예쁜 꽃이 해마다 피는 꽃밭을 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보내주는 돈을 아끼고 아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국에서 돌아오는 날, 말끔히 단장한 이 집을 보여주며 고맙다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의 자그마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게 되었

습니다. 돈이 끊기는 바람에 짓다 말아 흉물스럽게 된 집은 우리 가족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 부족한 엄마를 아이들이 위로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한참 사춘기를 겪을 나이여서 남편의 죽음이 큰 상처가 되었을 텐데도 씩씩하게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남편이 아이들과 했던 약속을 제가 대신 지켜 줄 수 있을지 자꾸 자신이 없어집니다. 공부만큼은 하고 싶은 만큼 다 하도록 뒷바라지 해 주겠다고 남편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 자꾸 남편에게 미안해집니다.

여보, 당신은 아낌없이 사랑을 주었어요. 그 사랑을 무턱대고 받기만 한 것이 늘 미안합니다. 여보, 당신이 자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당신이 세상을 향해 하고픈 말, 대신 전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당신이 이루고 싶어했던 꿈,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밝힐 수 없는 진실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때때로 그 원인과 진실을 가리기가 매우 어려울 때가 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므로 주위의 증언이 사건의 진실을 가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주위에 있던 또다른 이주노동자들은 미등록(불법체류자)이라는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 증언을 꺼리는 이들이 많다. 그 때문에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몇해 전 인천에서 사망한 미얀마인의 경우, 실제로는 공장에서 사망하였으나 유해물질 취급을 소홀히 해 왔던 사장이 그런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시신을 다른 장소로 옮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함께 일하던 친구가 그 사실을 밝히고 나섰지만, 오히려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되어 자신만 추방당하고 말았다. 증인이 강제추방당하면서 이 사건의 진실이 영원히 묻히고 만 것이다.





여섯 번째 이야기



수바스 구룽 Subash Gurung

28세, 2005년 8월 사망

2000년 입국하여 의정부에서 일하던 중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

유가족 : 어머니와 누나



한국으로 아들을 보내고 6년, 이제나 저제나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한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에미를 헤아려 항상 “사장님이 잘 보살펴 주고 있으니 걱정마세요” 했어요.

가끔 우리아들처럼 한국으로 일하러 간, 아들 같고 딸 같은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로 일하다 붙잡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혹시 우리 아들도 그렇게 붙잡혀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어요. 무사히 잘 지내라고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리다가도 아들이 정말 보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다른 집 아이들처럼 ‘어머니’ 하면서 달려올 것 같은데, 박복한 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도 없나 봐요. 다내 팔잡니다.

벌써 6년 전이네요. 우리 아들이 스물둘일 때예요. 한국에 가고 싶다고 그래요. 한국에 가서 다른 세상을 보고 경험도 하고 돈도 벌고 싶다고요. 저는 그렇게 원하지만 내 생각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멀리 보내는 것도 걱정되고, 너무 보고 싶을 것 같기도 해서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그런데 애는 자꾸 가겠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친척도 몇 있거든요. 친척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돈도 보내고 하는 걸 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은 ‘수끄띠’를 참 좋아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수끄띠’가 먹고 싶지 않을까 싶어, 아들이 전화했을 때 보내주겠노라고 말하면 이 녀석이 항상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져 올 사람도 없는 걸요. 그리고 여기는 먹을게 많아요. 아무 걱정 하지 마세요. 저는 잘 먹고 일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네팔로 가서 살것 먹어도돼요.” 했어요. 우리 아들은 네팔에서도 위낙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지나가는 바람만 맞아도 웃을 만큼 성격이 좋았어요. 그런 성격 때문에 한국에서도 잘 지낼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화근이었나 봅니다.

보통때 처럼 아침 먹고 선생님인 딸은 아들들 뒤치다꺼리를 끝내고 학교로 출근하기 위해 아주 바빴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순간 한국에서 온 아들의 전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아

“수바스니? 수바스, 수바스!”

몇 번이나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수바스가 아니고 수바스 친구입니다. 어머니.....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순간 ‘아들이 잠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아들에게 그밖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상상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친구는 한참만에 얘기를 다시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수바스가 우리를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수바스의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 나는 아파 정신을 잃었던 가봐요.

우리 아들은 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6년만에 내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재가 되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몇 장과 사고 당시 입었다던 잠바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들이 생각날 때마다 사고로 세상과 이별 할 때 얼마나 우리 아들이 아팠을지, 그리고 침울같은 어둠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을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옷을 가슴에 끌어안곤 합니다. 끝까지 새끼를 보살피지 못한 이 어미의 죄가 이렇게 한다고 씻길



수바스 구룡의 어머니



수바스 구룡의 어머니

까 싶지만 아들의 살 냄새가 배어있는 옷을 끌어안고 보듬어 봅니다.

오토바이 사고였습니다. 토요일날 일 끝나고 친구들과 술을 한 잔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도로공사하고 있던 곳이라 했는데, 어둠이 너무 깊어 막힌 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아마 그 길이 공사 중인 길인지 모르고 가다 벽에 부딪혀 사고가 났을 거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당시 우리 아들도 친구들과

과 술을 먹었고, 게다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데...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들 팔자이고 내 팔자 아니겠어요? 한국에는 불교 신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곳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었다는 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아들의 장례식을 한국에서 치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 시신을 가져오지 않고 장례를 한국에서 치렀다고 내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허나 남편도 없고 다른 아들도 없는데 우리 아들 마지막 가는 길이 차라리 한국이 더 편하겠다고 싶었어요. 대신 이 에미는 이 생에서 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아들 뺏가루를 조금씩 나눠 전 세계 유명한 절에 보내고 있어요. 여기 네팔에 계신 큰스님이 이 작은 탑에 뺏가루를 조금씩 넣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탑은 네팔 큰 절에도 보내고 미국에도 보내고 일본에도 보냈어요. 한국에서는 아들이 살다 죽었으니 안 보냈지요. 다른 나라에도 우리 아들이 편히 살 절이 있다면 보낼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아들을 전 세계의 좋은 절로 보내면 좋은 곳에서 쉬

다 아름다운 곳에서 다시 태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기 아들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가슴이 미어잡니다. 남들 앞에서 울 수도 없고 그래서 동네 사람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자식이 이제 내 생에 큰 응어리가 되었어요. 오늘도 또 밤이 찾아오겠지요. 밤이 되면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싶어 몇 번씩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개 짖는 소리라도 들릴라치면 아들이 왔는가 싶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밖에 나가 서성입니다. 얼마나 더 이렇게 밤서리를 맞아야 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와만 준다면 천년 만년도 괜찮습니다. 만약 그렇게 서성이다 죽은 녀이라도 만나지면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못난 에미랑 다음 세상에서 꼭 다시 만나자고.....